

포기하지마!

KIA·광주FC

광주 FC와 KIA 타이거즈는 시즌 전 우승 후보로 꼽히며 풍성한 가을을 꿈꿨다. 기대와 달리 '잔인했던 4월'과 '후반기 대추락'으로 오는 가을이 반갑지 않게 된 두 팀. 다른 팀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살펴봐야 하는 처지지만 그들이 꿈꾸던 무대의 실낱같은 가능성은 남아있다.

프로축구

3위 광주FC, 1위 경찰청 3대1 제압... 남은 15경기서 뒤집기 "불가능 없다"

프로야구

7위 KIA, 4위 넥센과 7경기차... 투·타조화 '승률 7할드라마' 쓰면 4강 기적

광주FC

◇가을 호재, 막판 기적을 꿈꾼다.

대어를 잡았다. 광주는 19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챌린지 20라운드 경기에서 경찰청구단을 상대로 3-1 승리를 거뒀다. 여범규 감독이 자의반 타의반 팀을 떠난 뒤 벌어진 첫 경기. 여 전 감독의 믿음 속에 광주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탈바꿈한 루시오가 2골1도움을 기록하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서울에서 이적해 광주 데뷔전에 나선 이광진도 골 맛을 보며 3-1 승리를 완성시켰다. 염기훈·오병석·이흥 등 쟁쟁한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 경찰청구단을 막은 광주는 4위 FC 안양과의 승점을 2점 차로 유지하며 3위 자리를 굳게 했다.

광주의 고지는 1위다. 챌린지 리그 우승을 차지해야 승강 플레이오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2위는 의미가 없다.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고지지만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은 도전이다. 전체 35라운드 중 20라운드를 소화한 현재 광주는 8승5무7패로 승점 29를 기록하고 있다. 1위 경찰청은 14승2무4패(승점 44), 1위 외의 승점차는 15다. 올 시즌 경찰청의 승률은 75%(승률=(승수×100+무승부×50)/경기수), 남은 15라운드의 승률을 75%로 잡을 경우 추가로 29~33점을 더하게 되면서 총 승점은 73~77이 된다. 광주가 남은 경기에서 전승이라는 기적을 연출해야 겨우 만회를 생각할 수 있는 격차다. 하지만 광주에게는 세 가지 호재가 있다. 먼저 경찰청의 전력 약화다. 9월28일 염기훈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제대를 한다. 시즌 도중 경찰청 전력이 반토막이 나는 것이다. 두 번의 맞대결을 남겨둔 현재 상대전적에서도 광주가 2승1무(골득실차 +1)로 경찰청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분위기도 뜨겁다. 후반기 두 경기에서 1무1패로 주춤했지만 5월부터 시작된 상승세는 7승4무2패, 70%의 승률을 보이고 있다. 13경기에서 24골을 넣었지만 실점은 17로 묶이며 공·수에서 안정된 모습이다. 만약 경찰청이 전력 약화라는 악재 속에 남은 라운드 승률이 50%대로 떨어진다면 총 승점은 62~66사이가 된다. 광주에게는 33~37점이 필요하다. 승률로 따지면 80%의 성공률로 가능한 점수다. 경찰청의 추락세가 더 가파르다면 광주의 추격에는 한걸 여유가 생긴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도전은 아니다.

KIA

◇선발진에게 달린 KIA의 가을.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광주와 달리 KIA의 '기적의 도전'에는 반기운이 없다. 가장 큰 고민은 마운드다. KIA가 후반기 침체 속에서도 4강 후보로 꼽힐 수 있었던 것은 마운드다. 선발진을 휩쓸었던 양현종의 복귀, 새로운 외국인 투수 빌로우의 합류로 선발진에 힘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에이스 윤석민이 마무리까지 자처를 하면서 비로소 전력이 완성되는 것 같았지만 결과는 대실패였다. 두 차례 등판에서 자존심을 구긴 양현종이 부상 재발로 자리에서 빠졌고, 김진우도 실망스러운 피칭으로 팀 4강 싸움에 힘을 보태지 못했다. 결국 마무리로 돌아선 윤석

민은 13경기에서 3세이브를 거두는 데 그쳤다. 선발진에는 마무리가 후반기에는 선발진이 무너지면서 KIA의 성적은 42승2무49패(승률0.462), 19일 현재 50승2무 43패(승률 0.538)를 기록하고 있는 4위 넥센과는 7경기 차다. 넥센의 현재 승률을 기준으로 0.540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남은 35경기에서 26승 이상을 가져와야 한다. 최근 3년 간 4위 팀 승률은 0.519(롯데·2010), 0.526(KIA·2011), 0.512(롯데·2012), 2011년 4위를 기록했던 KIA의 승률(0.526)로 계산해 해봐도 24승 정도가 필요하다. 7할 행진을 했던 4월의 신비함 질주의 재연이 필요할 정도로 4강 고지다. 일단 KIA는 그나마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한화(8승2패)·넥센(6승4패)과의 4연전에서 승수를 쌓은 뒤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입장이다. KIA는 지난 시즌 9월이 시작하기 도 전에 일찌감치 시즌을 포기했다가 롯데의 부진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 9월14일 KIA와의 더블헤더 2차전, 12회말 타진 황정림의 동점포에 일격을 당했던 롯데는 이후 7연패 높에 빠졌다. 겨우 연패를 탈출했지만 다시 5연패. 2위 롯데의 9월 승률은 3할대로 폭 떨어졌고, 선발진들의 호투 릴레이로 탄력을 받은 KIA의 거센 추격이 이어지면서 가을잔치 마지막 티켓이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도 했다. 물론 올 시즌에는 7위까지 내려와 있는 만큼 견제해야 하는 팀과 상황이 많다. 하지만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마지막 승부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나마 윤석민이 버티면서 단단해진 불펜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타선이 KIA의 마지막 희망이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그라운드 승부. 팬들은 기적을 향한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고개 떨구지마!

Ryu

7.1이닝 3실점 '18번째 QS'... 13승 불발 '괴물 신인' 대결서 페르난데스에 판정패



LA 다저스 류현진이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말린스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원정경기에서 포수 A.J.엘리스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류현진은 이날 경기에서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시즌 4패째를 떠안았지만 올 시즌 총 155.2이닝을 던져 올 시즌 1차 목표포 잡은 1500이닝을 돌파했다. /연협뉴스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NL)의 신인 왕을 놓고 경쟁하는 '괴물신인'의 어깨 대결에서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다저스)이 호세 페르난데스(21·마이애미)에게 판정패했다. 류현진은 20일 미국 마이애미의 말린스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1이닝 동안 삼진 5개를 뽑아내고 3실점했다. 그러나 팀이 2-6으로 패하면서 6이닝 3탈삼진 2실점(1자책)을 기록한 페르난데스에게 승리를 내줬다. 공의 위력에서 페르난데스가 류현진을 능가했다. 류현진은 최고 시속 94마일(약 151km)에 이르는 직구를 포함해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을 던졌다. 페르난데스는 최고 시속 99마일(약 159km)의 직구의 위력이 가장 뛰어났다. 제구가 잘된 직구는 스트라이크존의 좌우 축을 오가며 다저스의 타선을 농락했다. 시속 약 83~86마일(133~138km)의 떨어지는 빠른 커브는 결정구로서 위력을 발휘했다. 류현진이 땅볼 타구 9개를 유도하는 맞혀 잡는 투구를 펼쳤다면 페르난데스가 땅볼 유도 5개)는 6이닝 동안 삼진 8개를 뽑아내는 위력투를 자랑했다. 위기관리 능력에서도 페르난데스가 한발 앞섰다. 1회초부터 볼넷 2개로 1사 1·2투의 위기에 몰린 페르난데스는 다저스의 4번타자 헨리 라미레스를 뜬공, 앤드리 이시어를

삼진으로 잡아 위기를 넘겼다. 5회에는 3루수 에드 루카스의 실책으로 무사 만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실점을 최소화했다. 칼 크로퍼드의 땅볼 때 1점을 내주기는 했지만 1사 1·3투에서 야시엘 푸이그를 삼구삼진으로 처리한 데 이어 에드리아 곤살레스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낸 장면은 이날 경기의 백미였다. 류현진은 3회 2사 이후 투수 페르난데스에게 이날 첫 안타를 허용한 데 이어 크리스티안 엘리치에게 2루타를 맞아 1실점했고 다음 타자 도노반 솔라노에게 우전 적시타를 맞으며 2실점했다. 류현진은 6회 로건 모리슨에게 2루타를 맞아 추가로 실점한 뒤, 1사 만루에서 아테이니 에체베리아에게 병살타를 끌어내면서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을 되찾았다. 류현진에게는 투수 페르난데스에게 맞은 안타가 뼈아팠다. 류현진은 "컨디션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 3회 투아웃을 잡아놓고 투수에게 안타를 맞은 게 큰 실수였다"며 "직구를 던지지 말고 변화구를 던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다. 경기 내내 그게 마음에 걸렸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두 달 만에 패전투수가 된 류현진은 "한번 질 때가 된 것 같다. 홈에서 성적도 잘 나오고 하니 다음 등판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협뉴스

전남 - 포항 25일 '제철家 터비' 팬들에 '기아차 쏘울' 쏜다

전남이 K리그 클래식 포항과의 '제철가(家) 터비'에 자동차 경품을 쏜다. 전남 드래곤즈가 오는 25일 오후 7시 광양 전용구장에서 1위 포항 스틸러스와 '제철가 터비'를 벌인다. '형님' 포항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꿈꾸는 전남은 팬들을 위해 통근 경품을 내걸었다. 추첨을 통해 기아자동차 쏘울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방 팬들을 위한 시원한 승리도 노린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포항이 앞서있다. 전남은 최근 5경기에서 1승2무2패를 기록하며 승점 5점을 더하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 포항은 최근 5경기에서 4승1무로 무패행진을 펼치며 1위(13승7무3



패·승점 46) 독주를 하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의 4개의 골을 넣는데 그친 전남의 '골 결정력'이 관건이다. 경기의 흐름을 잡고 득점에 실패하며 어려움을 겪은 전남이 화끈한 경품과 함께 시원한 승리까지 팬들에게 안겨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홍명보호, 아이티·크로아티아와 평가전

내달 6일 인천·10일 전주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9월 아이티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친선 경기를 벌인다. 대한축구협회는 "9월 6일 인천 축구전용 경기장에서 아이티와 친선 경기를 치르고, 9월 10일에는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크로아티아를 상대한다"고 발표했다. 경기 시작 시간은 두 경기 모두 오후 8시다.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소속인 아이티는 국제 축구연맹(FIFA) 랭킹 74위로 지난 6월 이탈리아와의 친선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스페인을 상대로 한 A매치에서는 1-2로 졌다. FIFA 랭킹 56위인 한국이 아이티와 축구 A매치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상대인 크로아티아는 FIFA 랭킹 8위의 강팀으로 올해 2월 영국 런던에서 맞붙어 우리나라가 0-4로 졌다. 한국과 상대 전적은 2승2무2패로 팽팽하다. 2006년 홍명보

서 열린 칼스버그컵에서는 한국이 김동진과 이천수의 득점을 묶어 2-0으로 이겼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아이티의 FIFA 랭킹이 한국(랭킹 56위)보다 낮고 하지만 최근 북중미에서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라며 "국내파는 물론 유럽과 선수까지 모두 모이는 만큼 조직력 점검 차원에서 적절한 상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티전을 통해 선수들이 손발을 충분히 맞춘 뒤 강호인 크로아티아와 제대로 맞붙는다는 게 9월 평가전 전략"이라며 "홍 감독도 크로아티아전에 대해 자신의 전술을 제대로 펼쳐볼 수 있어 사령탑과 선수 모두에게 '윈-윈'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티는 1990년대에 랭킹 100위권 밖을 전전하던 약체였지만 2009년부터 90위권으로 진입하며 지난해 12월 39위를 찍고 지난 1월 역대 최고인 38위까지 랭킹이 치솟았다가 올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협뉴스

광주일고 '대통령배' 품을까 전국 고교야구 준결승 진출

내일 광주고와 결승행 다름

광주일고가 대통령배 준결승 티켓을 획득했다. 광주일고가 지난 19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47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 8강전에서 부경고를 7-4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2-3으로 뒤지던 7회초 이호연이 영웅이 됐다. 1사에서 송동욱의 2루타와 정다문의 내야안타가 이어지면서 광주일고가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 김원욱이 몸에 맞는 볼로 걸어나가면서 1사 만루, 임도열이 볼넷을 골라내면서 경기는 3-3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어진 1사 만루 찬스에서 3번 이호연

이 우익수 방면으로 공을 날리면서 주자들이 모두 홈으로 달려들었다. 이호연은 3루에 안착하면서 역전 싸움이 3루타를 만들었다. 김경영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점수는 7-3까지 벌어졌다. 광주일고는 3점 차로 앞선 9회말 4개의 사사구로 1점을 내주기는 했지만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하며 4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광주일고는 22일 오후 3시 잠실구장에서 광주고를 상대로 결승행을 다룬다. 한편 준결승의 대회 2연패 도전은 아쉽게 실패로 끝났다. 광주고와 8강 승부를 벌인 준결승은 10회 연장 승부처기 끝에 2-3으로 져, 4강 진출이 무산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